

여주(*Momordica charantia* L.)의 국내 재배현황 및 재배관리기술 실태

김창영¹, 이두원¹, 곽재균¹, 고호철^{2*}

¹(사)농진중앙회, ²농촌진흥청 기획조정관실 고객지원센터

Current Situations of Domestic Cultivation and Cultivation Management Technology in *Momordica charantia* L.

Chang-Yung Kim¹, Doo-Weon Lee¹, Jae-Gyun Gwag¹, Ho-Cheol Ko^{2*}

¹Nongjin Central Committee, Suwon, 16432, Korea

²Client Service Division, Planning and Coordination Bureau, RDA, Jeonju 54874, Korea

여주(*Momordica charantia* L.)는 인도 동부와 남중국 등 열대 아시아 지역이 원산지로서, 열대 및 아열대를 비롯하여 온대 지역까지 널리 재배되며, 열매를 식용으로 하여 주로 채소로 재배되고 있는데, 쓴맛 때문에 ‘쓴오이’ 라고도 부르지만 당뇨와 고혈압 등 성인병과 장 기능 개선 성분을 함유하고 있다고 알려지는 등 건강기능성 작물로 국내에서도 전국적으로 재배가 되고 있어서, 국내 재배현황과 재배농가의 실태를 조사하여 재배 애로사항 및 발전과제를 도출코저 하였다. 여주의 국내 재배는 2012년 재배면적이 10ha에서 빠르게 증가하여 2017년 606농가 107.9ha로 정점을 이루고, 점차 감소하여 2019년 232농가 59.9ha에서 재배 하였으며, 2019년 재배면적이 많았던 시군은 함양, 강진, 양주, 천안 등 이었다. 여주의 재배작형은 보통재배(육묘후 노지재배) 농가가 가장 많고, 노지재배(직파), 반촉성재배(조숙재배), 촉성재배 형태의 농가가 있는데, 보통재배(육묘후 노지재배)는 3월 하순~4월 상순에 파종 및 육묘한 후 5월상순 노지에 정식하여, 6월 하순부터 가을에 서리가 내리기 전까지 수확한다. 농가의 재배품종은 일본 등 외국도입종의 종자를 종자회사로부터 구입하여 재배하고 있으며, 재식방법, 시비관리, 출기유인 등 표준재배법이 정립되지 못하여 농가별로 다양한 방법으로 재배하고 있는 실정이다. 수확은 열매가 완전히 익기전에 생여주 상태에서 수확하고 있으며, 일반 재배농가는 생여주 판매가 10~20%, 건여주 판매가 80~90% 비율이며, 생여주로 100% 건조업체에 판매하기도 하고, 건여주로 100% 건조하여 판매하는 농가도 있다. 국내재배 안전성 향상을 위하여 필요시 되는 기술개발 과제는 용도별 품종육성 및 종자생산 보급, 고품질 여주 생산을 위한 재배관리 기술, 지역별 생산 여주과실의 성분 품질관리 및 건조 가공기술, 여주의 건강기능성 식품 지정 고시 방안 등으로 전문가 관에서의 연구개발이 필요하다.

주요어: 여주, 아열대작물, 재배현황, 농가, 재배기술

[본 연구는 농촌진흥청 연구사업(세부과제번호: PJ01490201)의 지원에 의해 이루어진 결과로 이에 감사드립니다.]

*(Corresponding author) E-mail: hchko@korea.kr Tel: +82-63-238-0591